

# 'KREI리포터' 경남지회 간담회 결과

## 1. 개 요

- 목 적: 농업·농촌 현장여론 수렴 및 리포터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
- 일 시: 2017년 12월 4일(월) 11:00~15:00
- 장 소: (주)한국동백연구소(경남 통영시)
- 참 석: 총 12명
  - 경남지회 리포터(12명): 강상태, 권수열, 김미숙, 유재하, 배익선, 이현순, 임태화, 정재호, 박경식, 전경수, 조복례, 하건호
- 주요 일정

시 간	일 정	비 고
11:00~11:30	등록	
11:30~12:30	간담회	6차산업 관련 현장여론 수렴
12:30~13:20	견학	(주)한국동백연구소
13:20~15:00	점심식사	바다이야기

## 2. 주요 논의 내용

- (주)한국동백연구소 견학
  - 한국동백연구소는 동백씨앗에서 추출한 동백오일로 무방부제, 무화학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음. 한국동백연구소 박원표 대표는 2011년 국내산 동백종자 전국수매망을 구축하고 동백오일 비화학적 정제기술을 개발하여 일본, 프랑스, 중국 등 동백오일 수출계약을 맺고 있음. 2015년에는 경상남도 수출 공로상을 수상하고, 농림부 지정 '6차산업 사업자'로 선정되기도 했음. 경남 지역 농업 6차산업 활성화의 우수사례로써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교류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.

## ○ '6차산업' 관련 현장여론 수렴

- 임태화(창원시): 순수농민의 6차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많음. 생산관리지역에 6차산업 인증자에 한해서 음식료업을 할 수 있게 풀어줄 것을 건의함. 또한 농림지역내 불법건축물(축사, 농가주택) 양성화가 필요함. 농산물의 제철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, 각 농가에 저온저장고가 너무 많아서 저장 농산물이 넘쳐나고 재고만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. 근본적으로 농업가치를 올리는 작업이 필요함. 체험관광, 가공판매,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많음.
- 권수열(창녕군):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 매우 어려움. 농협의 판로개척과 농협판매수수료 조정이 필요함. 농촌관광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. 일반농민들이 6차산업에 진입하기는 매우 힘든 실정임.
- 강상태(남해군): 생산관리지역 완화에 6차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전농가에게 완화해줄 것을 요망함. 농림지역에 기 건축된 부분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필요함.
- 정재호(고성군): 생산관리지역내 6차산업 인증농가에 대해서 식당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필요. 농업인의 6차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많음.
- 류재하(진주시):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수수료가 높아 조정을 희망함. 6차산업은 작년보다 2%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,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6차산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.
- 조복례(사천시): 6차산업(1차, 2차, 3차)은 경남지역에만 2,300명이 인증을 받았음. 백화점, 롯데아울렛, 백화점, 농협하나로 마트가 주 판로이며, 판매활동에 대한 수수료는 농협자체에 준하고 있음. 중앙코드는 6%인데 실제로는 16~17%를 원함. 6차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임.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어야 함.

- 하건호(창녕군): 6차산업 전체농민들의 인력, 유통(관로)문제가 큼. 앞으로 시장성이 있는 농산물을 선택해야 하는데, 예측이 쉽지 않고, 가공은 유통 협력이나 홍보가 부족, 자금부담이 커 어려움이 많음. 로컬푸드로 가치를 높여 나가는 자구책이 필요함.
- 이현순(통영시): 동백연구소대표 6차산업 발전 성공사례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음.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지역내에 논, 밭, 축사 양성화해서 농외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임.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관광, 체험으로의 연계는 매우 어려움. 실제 농민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.

### ○ 경남지회 간담회 계획

- 앞으로도 분기별 모임을 가질 예정임.(3, 6, 9, 11월) 2018년도 첫 모임은 3월에 창녕에서 11시경 모이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.

### 3. 이모저모

